

작지만 따뜻한 즐거운도서관의 가족사랑 행사 “그림동화 좋아요”



최지혜*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늦은 3시~4시까지 <그림동화 좋아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만 4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도서관에 왔다가 또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 해서 누구나 슬며시 들어와 같이 책놀이터를 펼쳐보는 행사이다. 책은 나의 친구이며, 도서관은 나의 놀이터임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독서주간을 맞이하여서는 ‘가족사랑’을 주제로 정해서 실시하였다. 간단하게 행사 진행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50분정도부터 엄마랑, 할머니랑, 또는 혼자 아장아장, 쪼르르 책 친구를 만나러 책놀이터를 찾아온다. 어떤 날은 50명도 넘고, 어떤 날은 20여명정도이고, 매주 들쭉날쭉하지만 단골 친구들도 많다.

그림책은 한글을 아는 아이들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들려주고 아이들은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가능한 한 아이들이 책은 정말 친구처럼 좋고, 나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자 하며, 특히 ‘그림동화 좋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책놀이터에서 마음껏 상상을 펼치게 하고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창안해 아이들과 놀이터를 펼쳐본다.

이번 도서관주간에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샘 맥 브래트니 글/아니타 제랍 그림)을 읽어주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토끼 얼굴 접기와 내 아빠 얼굴그리기를 했다.

먼저, 아이들에게 간단한 율동과 손인형을 이용해 관심을 한 곳으로 모은다. 손인형 ‘미피’를 등장시켜 책 놀이터에 온 아이들에게 “책의 요정 미피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왔나봐요, 자~ 우리 다같이 미피를 불러볼까?” 하고 유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두 손을 입으로 모아 “미피야, 나와라!”하고 외친다. 한번으로 미피가 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째~ 하고 미피가 나오고, 인사노래가 시작된다.

* 대치4동 즐거운도서관 어린이주제전문사서, aiaime@hanmail.net

♪ 인사노래

안녕 친구들 또 만났구나
 오늘도 신나게 책과 함께 놀아보아요.
 친구에게 인사해 친구에게 인사해 인사합니다.
 ○○○!(멋진,예쁜) ○○ 아! 친구에게 인사해 ~

위의 노래를 통해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한 명씩 자기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인사를 한다.
 인사가 끝나면 그림책 놀이를 위한 간단한 주위 집중 노래로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암시를 보낸다.

♪ 그림책을 부르는 노래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쭉~ 옥 □□(오른쪽 팔을 위로 쭉 올린다)
 아가별이 올라갑니다. 쭉~ 옥 □□(왼쪽 팔을 위로 쭉 올린다)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짹~ 악□□ + □□(손뼉을 친다)
 무릎으로 내려옵니다. 뚜~ 옥□□+□□(두 손을 얹진하게 모아서 무릎에 내린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작은 목소리로 한손을 귀 뒤로 두고 이야기 경청자세를 유도한다) 쉬~ 잇(둘째 손가락을
 입에 대고 이야기 들을 분위기를 유도한다)

아래 사진처럼(사진 1) 그림책을 읽어준다. 이때 아이들은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의 목소리와 그 톤에 따라 집중하느냐, 상상의 세계에 마음껏 들어가느냐가 달려있다. 아이들의 그 눈동자의 변화, 얼굴의 변화는 정말 다양하고 새롭다. 무엇보다도 그림책은 읽어주는 사람이 그 그림책을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진 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 ②. 각자 한 작품을 높이 들고, 아빠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다)

독후활동으로 토끼얼굴 색종이 접기와 내 아빠 얼굴그리기를 했다. 먼저 색종이를 나누어주고 색종이 접기를 한다. 토끼얼굴을 접고, A4용지에 붙이고 토끼 몸통은 직접 색연필로 그리게 한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아빠 얼굴을 그리는데 이때 내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작품이 완성되면 “아빠 사랑해요!”를 외쳐보게 하고(사진 2), 아빠에 관계되는 노래도 다함께 불러본다. 